

황중우 장관, 순직선원 위령탑 참배 후 선원노련 의장단 간담회 가져

- 순직선원을 추모하고, 선원노련 의장단 간담회를 통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선원 안전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

황중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4일(월) 순직선원 위령탑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8개 기관*과 함께 참배를 하고, 이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(이하 선원노련) 의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선원 관련 주요 현안과 선원 정책에 대한 선원노련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.

*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, 한국해운협회, 한국원양산업협회, 한국해운조합,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, 한국해기사협회,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

이번 간담회에는 김두영 위원장과 의장단 등 선원노련 관계자 12명이 참석하였다.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중동 장기화에 따른 선원 안전확보 방안과 선원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선원노련의 건의사항에 대해 참석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.

황 장관은 “중동 전쟁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원의 안전 확보가 여전히 최우선 과제”라며, “선원노련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중동 전쟁 등 현재 직면해 있는 여러 선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”라고 강조하였다.

담당 부서	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정로 (051-773-5740)
		담당자	사무관	이은재 (051-773-5745)
		담당자	사무관	장성은 (051-773-5747)